

기업

넥스트젠, 시리즈A 60억 투자 "섬유화 질환 집중"

기사입력 : 2019-08-19 13:43 | 수정 : 2019-08-19 13:43

바이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

이번 투자금 비임상 단계의 섬유증, 황반변성 치료제 투입..."내년 IND filing 계획"



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가 설립한지 1년만에 신약후보 물질 개발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했다. 넥스트젠은 한국투자파트너스와 DSC인 베스트먼트로부터 시리즈A

로 6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19일 밝혔다. 넥스트젠은 유한양행 신약연구센터장,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장, 대웅제약 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한 이봉용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.

이번 투자금은 섬유증(NX-1902), 황반변성 치료제(NX-1901) 후보물질의 비임상 개발에 주로 투입될 계획이다. 모두 국내에서 초기 시드(seed) 단계의 물질을 도입해 최적화한 것이다. 이봉용 대표는 "현재 비임상 단계에 있는 두 후보물질은 모두 'first-in-class' 타깃을 겨냥한 저분자화합물"이라며 "내년 중반 임상승인신청서 제출(IND filing)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미국 임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넥스트젠은 자체 R&D를 갖추고 있으며, 판교에 바이오연구소와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연구실 두곳이 있다. 현재 회사 신약 파이프라인은 섬유증질환, 황반변성질환, 비알콜성지방간염(NASH)의 3가지 질환에 포커스하고 있다. 특히 섬

유증질환과 비알콜성지방간염으로 진단받는 환자수는 많지만 질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치료제(disease-modifying drug)가 없는 미충족수요군이 큰 질환이라는 점에서, 최근 글로벌 업계에서 인수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다.

이 대표는 "내부적으로 섬유증 질환에 집중하고 있다"며 "섬유증 질환의 새로운 타깃을 찾고, 동시에 좋은 후보물질을 도입해 최적화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"고 설명했다. 섬유증은 자연스러운 조직 치유 과정이나 콜라겐, 피브로넥틴 등 세포 외기질(ECM)이 조직에 과다하게 쌓이고,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. 섬유화는 폐, 간, 신장, 심장, 피부, 눈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.

넥스트젠의 전략에 대해 이 대표는 "넥스트젠은 환자에게 필요한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 신약 후보물질이 개발될 수 있는지 여부(developability)를 판단한다"며 "이에 따라 적응증을 선택하고, 임상개발에 속도를 내겠다"고 말했다.

김성민 기자 sungmin.kim@bios.co.kr

바이োস펙테이터

<저작권자 © 바이োস펙테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@bios.co.kr